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도자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30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담당자	• 요양보호팀장 • 담당자	강경숙 ☎440-2821 송하원 ☎440-282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최초 시립요양원, 남동구 도림동에 개원
 - 지상3층 건물, 104병상, 치매전담실, 게스트룸, 옥상 텃밭 등 갖춰 -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입소 대상 ... 평온하고 체계화된 공공요양 서비스 제공 -

인천시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남동구 도림동에서 인천시 최초의 시립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신영희 시의회 부의장, 맹성규 국회의원, 박종효 남동구청장,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 인천시의회, 남동구의회, 천주교회유지재단 총대리신부,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및 부회장, 노인복지 관련 유관협회,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립요양원은 노인 1천만 시대 인천시민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총 사업비 1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2,984.25㎡ 지상 3층 건물로,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 총 28실 104병상을 갖췄으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68명의 인력이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입소한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요양원 내 게스트룸은 물론, 정서 안정 등을 위한 옥상 텃밭과 산책테크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노년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려했다.

입소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 어르신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입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자세한 입소 관련 문의는 인천시립요양원(☎032-423-7771)으로 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지역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전문성 및 신뢰를 갖춘 다양한 의료·복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개원식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전경>

